

한 찰나에 밝아질 수 있는 것이 이 마음공부!

25면에서 계속

차원이어서 강퍽거리 부딪쳐서 소리만 요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강퍽이 된 내 탓이라고 생각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자비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행동과 부드러운 말을 해 준다면 서로가 '아, 내가 이렇게 악한 말을 하는데도 저렇게 선하게 저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녹아지고, 녹아지면서 또 이쪽도 그렇게 서로 응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응해줘요. 그럼으로써 화목해집니다. 그러면서 화목해지면 돈도 그 화목한 집에 들어가서 약한 집에 들어가서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영혼! 이 자체라고 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하하... 말을 한참 하다 보니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자(남): 스님, 초발심자를 위해서 이것을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불성과 주인공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큰스님: 불성이라는 것은 한 근원을 말하는 거고요, 주인공이라는 것은 내 몸체와 마음내는 거와 불성을 통합한 겁니다. 지금 주인(主人)이면서도 공(空)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돌아가는 자체를 바로 딱 집어서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예!

질문자(남): 제가 아전에 질문을 하려고 이것을 빼 가지고 오면서 차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불성과 주인공과의 관계, 마음과 주인공과의 관계, 영혼과 마음의 관계,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퍼뜩, 이 모두가 빛과 같은 말씀이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빛은 그냥 밝게만 보이지만 빛을 등지고 물을 뿜을 때는 오색무지개가 나옵니다. 그 무지개 속에는 생명의 빛도 있고 약사의 빛도 있고 그야말로 만물의...

큰스님: 아거 보십시오, 간단하게 우리 배웁시다. 이렇게 나뉘어 가지 하나하나, 이파리 하나하나 여러 가지로 얘기하다 보면요, 생이 다하도록 배워도 못 배웁니다.

질문자(남): 그래서 빛과 같다는 그 생각이 맞는 생각인지 이것을 한번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큰스님: 아, 지금 말하는 것도 빛과 같죠. 허허하... 고정됨이 없으니까요. 이 말 하고 저 말 하고 그러는 거지, 고정되게 한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했으니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주인공에서 일어난 거니까 주인공에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아요?' 하고 놓으라는 얘깁니다. 이 주인공이란 티끌 하나 빼놓지 않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내부의 자생증상들과 더불어 같이 말합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나쁜 생

각을 해도 안에서 의식들이 그냥 나쁜 생각과 하나로 돌아가고, 좋은 생각을 해도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건 왜냐? 의식들이 자기가 자유자재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식들이 자재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여지게 돼 있습니다. 의식이,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내라, 좋은 생각을 내라 이라는 겁니다. 남을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내 몸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아, 내가 수억걸을 가져 올 때 어떤 모습은 안 됐을 거냐. 어떤 모습도 안 돼 봤을 리가 없으니까, 그때의 바로 내 모습이로구나.' 하고 그것을 돌이키게 생각하라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뿌리를 얘기할 때 가지를 쥐고 앓을 쓴다거나 이러서는 안 됩니다. 한 뿌리에 가지 잎새가 헤아릴 수가 없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뿌리의 그 근본 알면 그 가지는 저절로 알아지고 잎새도 저절로 알아집니다. 그러니까 가지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잎새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오직 자기의 뿌리에 집중하라

말입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가 나무들을 볼 때에, 뿌리에 모든 썩이 붙어 있는데, 그 썩이 잘못 생각을 한다면 뿌리가 썩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벌써 가지가 썩습니다. 그와 같이 나무들은 흙에 가려졌기 때문에, 그 흙에 덮여서 자기 뿌리를 못 봅니다. 그런 거를 무명이라고 합니다. 인간도 자기 뿌리를 자기가 못 보기 때문에 무명에 덮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려진 것이 가려지고, 한 찰나에 밝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육신이 태어났으면 마음이 태어나라. 마음이 태어났으면 마음을 길러라.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또 내가 견성했다고 하지 마라. 마음이 태어났다면 견성을 했다고 모두들 하는데 견성했다 말 하지 마라. 어린애가 어른이 되어 어른 값을 하지, 어른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찌 어른 값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오(頓悟)'는 탄생하는 거요, 또 길러 내는 거는 '점수(漸修)'입니다. 그게 이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와 돈오가 둘이 아닌 까닭을 알고 진실하게, 이 이를 찾고 저 이를 찾지 말고, 내가 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다 이런 생각도 말고, 오직 사람부터 왜야(도)가 거기 저절로 붙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건히 가지시고 누가 뭐래도,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철 살다가 가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결망을 걸머지고 어디 놀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딴 데서 놀러 온 그런 사람들과 같이 놀니다. 같이 놀다가 해가 지면 다시 헤어져서 돌아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 놀다 가는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놀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모습이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요, 살다가 보면 저절로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나는 것으로부터 질문을 해서 그 대답이 타당하게 딱 받아들여질 때에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책을 보고 적어 가지고 온다면, 허허, 적어 가지고 와서 그걸 글자로 알리고 하면 반쪽밖에 못 들어갑니다. 반쪽에는,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또 우리가 아는 것을 질문을 할 때는 남들을 위해서 보

살 보현보살 이렇게 양쪽에 놓으시죠? 그 삼불(三佛)은 바로 이겁니다. 부처님의 능력으로써 한 생각을 내시면, 즉 말하자면 이것을 문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이란 얘깁니다. 그러니까 법이 되죠. 그러면 마음을 내면 또 이쪽에서는 보현이 됩니다. 화(化)해서 보현이 돼서 보현이 화신(化身)으로 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승이 원한다면 집승한테로 가기 위해서 집승이 돼 주고, 집승이 돼야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 견지니까 말입니다. 사람이 원한다면 사람으로 화하고, 뭐 천차만별의 중생들을 다 건질 수 있는 그런 화신으로 화해서 변합니다. 천 개 만 개로도 변합니다. 변해서 바로 가서, 개라면 개대로 개가 돼 주면 그냥 응신이 되는 겁니다. 응신! 이 뜻은요, 여러분이 공부할 해야 하는 거지 말로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 드려도, 이 뜻을 알고 우리가

공부를 자주 자주 하다 보면, '아, 그때 말씀하신 게 이 거로구나.' 하고 체득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처할 수 있게끔 그 자체로운 활용을 할 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는 것은 자기 생사의 문제가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죽는다 산다도 떠났으니 하는 겁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도를 이루어서 부처가 되겠다.' 한다면 부처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그냥 생활 속에서 배우면서 체험하면서 자주 가다 보면 저절로 하늘에 닿듯이, 저절로 직결이 돼 있는 걸 알게 되고 통하는 걸 알게 되고, 적용하는 걸 알게 되고 그대로 실천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조금조금 실험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단번에, 그 밝아야 될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그냥 밟고 올라서는 격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가 배운 대로 그릇대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허허하...

질문자(남): 불교를 공부하지 않은 서양의 유명한 사람이 수백 년 전에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80, 90%가 맞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래가 아예 짜여져 있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또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미래를 80, 90%까지 미리 얘기를 해서 맞출 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큰스님: 아이, 참 내!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는

데요, 내가 항상 그러죠.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다고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입력된 모든 것이 바로 현재 속에 다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다 들어 있어서 거기서 그대로 차곡차곡 입력됐던 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고 예언을 하느냐 이거죠?

질문자(남): 네.
큰스님: 네, 허허하...
질문자(남): 그러니까 2차대전이 일어나는 거 같은 이런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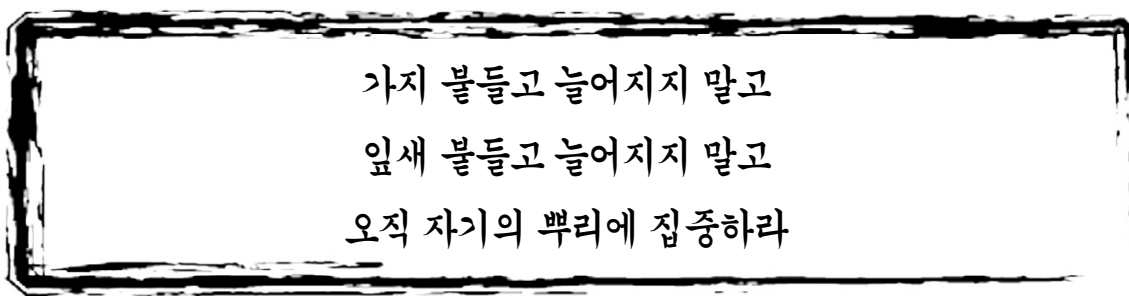
큰스님: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공(空) 안에서 나오는 것이니 삼세심(三世心)을 일심(一心)으로 뭉쳐서 공 안에다 놓으라.' 이러는 거는 일체 삼세가 다 공했으니까, 그 공 안의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모두 뇌라 이러는 겁니다. 거기 '한마음' 이라면 벌써 과거·현재·미래가 다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면 미래를 예언하는 자는 소인이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것은 자유자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예언이 없습니다. 왜냐?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될 수도 있고, 내일 이랬다가 모레 저될 수도 있고, 허허하... 아니, 바퀴 놓기도 하고 뒤집어 놓기도 하는데 어떻게 예언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고정되게 딱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언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예언자는 아예 소인이면서도 도득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예언자는 소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겁을 여기에 갔다 왔는데 이거를 '여기 있다' 하고 예언을 한다 해도 잠시 후에 이 겁을 또 들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언한 게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언자가 정말 있어서 예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예언한 것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부처님께 걸린다면 예언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거는 소인의 행동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본 것이 그대로 있습니까? 한 번 들은 게 그대로 있습니까? 종소리 나는 거를 듣고 울 수가 있습니까? 먹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귀에다 넣고 울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예언을 못합니다. 종소리가 금방 낫다 금방 멎었다 하는데, 어떻게 종소리가 난다고 예언을 할니까? 그리고 종소리가 안 난다고 할 수도 없고 종소리가 난다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소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 뜻을 아시겠죠, 모두.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5년 2월 5일 법행제법회에 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든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지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잎새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오직 자기의 뿌리에 집중하라

살행을 하는 거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딱그릇에 엮드려져라 하는 격으로,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질문을 던질 때, 모든 사람이 그 한마디를 듣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것도 바로 보살행입니다.

질문자(남): 저는 안양 본원 법행제에 나가고 있습니다. 상천계, 중천계, 하천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천계는 중천계 중의 미물세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천계가 따로 있는지, 그리고 따로 있다면 이 태양계 내에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아이고!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보고 싶잖아요. 땅 속에서 사는 거, 날아다니면서 사는 거, 땅에서 사는 거, 또 우리 인간들이 사는 거, 이렇게 보고 싶지 않으세요?

질문자(남): 봅니다.

큰스님: 그래서 하천세계는 바로 집승들, 그 하천세계를 말하죠. 중천세계는 우리들이 사는 이런 세계를 말합니다. 상천세계는 부처님 같은 분들, 이런 깨진 분들이 사는 그런 세계라고 일컬어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삼천세계가 바로 한도량에 있으니, 도리천에 자재활동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된다면...'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다 가도 오다가도 앉아서도, 생각날 때 때 들을 때 그냥 무조건 내가 응해 줄 수 있는 응신(應身)이 될 수 있다면 자유인이죠. 부처님 옆에 왜, 문수보

봉녕사 승가대학 2010학년도 신입생·편입생 모집 공고

본 승가대학에서는 2010학년도 신입생·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인원 ○ ○ 명 ◆ 지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타 강원생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 전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및 필기시험 (초발심자경문, 염불실기, 불교기초지식) ◆ 도착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3월 15일 월요일 오후 4시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건강진단서(종합병원 용) 5) 최종학력 증명서 6) 사진(3×4) 3매 ◆ 준비물: 만의, 장삼, 필기도구 ◆ 버스운행: 수원역 앞에서 봉녕사 승가대학 버스를 오후 1시 ~ 4시까지 운행함.
---	--

봉녕사 승가대학 학장 묘엄

문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 봉녕사 승가대학 ☎ 031)256-4127 / 팩스 031)254-3371, 253-3877

• 홈페이지 (www.bongnyeongsa.org)에서 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 봉녕사 승가대학 ☎ 031)256-4127 / 팩스 031)254-3371, 253-3877

• 홈페이지 (www.bongnyeongsa.org)에서 원서 다운로드 가능.

봉녕사 금강울원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

봉녕사 금강울원에서는 2010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인원 ○ 명 ◆ 지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자. (타 강원 졸업생 스님들의 입망도 가능) ◆ 전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및 필기시험(불교교리, 범망경) ◆ 도착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3월 15일 월요일 오후 4시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학원서(본 울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은사스님 추천서 4)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5) 건강진단서(종합병원 용) 6) 승가대학 졸업증명서 7) 사진(4×5) 3매 ◆ 준비물: 가사, 장삼, 필기도구
--	--

**봉녕사 금강울원 울 주 묘엄
울원장 대우**

문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 봉녕사 승가대학 ☎ 031)256-4127 / 팩스 031)254-3371, 253-3877

• 홈페이지 (www.bongnyeongsa.org)에서 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 봉녕사 금강울원 ☎ 031)256-4127 / 팩스 031)254-3371, 253-3877

• 홈페이지 (www.bongnyeongsa.org)에서 원서 다운로드 가능.